마을미디어 실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근거이론을 통한 분석*

이희랑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김희영 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석사과정***

마을미디어는 미디어교육이 마을공동체 운동과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미디어 활동이다. 2012년 서울시의 지원 정책과 함께 등장하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는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실천 과정을 이해하고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근거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영상 및 라디오 분야 활동가를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근거이론에 따라서 개방코딩한 결과 16개의 범주와 59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축코딩 결과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 활동 욕구라는 중심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마을 채널의 부재와 공적 지원의 불안정한 정황에서도 운영의 안정화와 마을미디어네트워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페이스미디어 발명, 다각적 배급방법 모색, 네트워크 공동행동의 전략적 실천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마을의 현안을 발굴하고 의제화하면서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됨으로써 마을의 공론장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한층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EYWORDS 공동체미디어, 마을미디어, 지속가능 욕구, 근거이론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으며 토론에 함께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lhr02392@hanmail.net, 주저자/교신저자

*** steam888@hanmail.net, 공동저자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본격적인 담론이 출발한 것은 2000년대다. 방송미디어의 개혁을 단행하며 이루어진 통합방송법은 '시청자권리'를 명시하며 시민들의 미디어 권리를 법과 제도적 수면으로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법적으로 명시하며 '퍼블릭 액세스' 개념이 제도화되었고, 시민들의 미디어 참여와 제작을 지원하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미디어활동 지원을 위한 공동체미디어 교육과 활동이 점차 확대되었다. 액세스 채널인 시민방송 RTV가 개국했고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이주민,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매체로서 소출력 라디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2004년 시범방송을 시작으로 2009년 '공동체라디오'가 정규방송을 시작하였다.

국내 공동체라디오는 소출력 FM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이 운영과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7곳의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이 있다. 공동체라디오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이원적 체제를 가로지르는 제3섹터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제도화 과정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규제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적 정책으로서의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고 여전히 '시범방송' 수준의 정책적 한계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의 산적한 정책 과제는 국회를 표류하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 욕구와 의지는 주변부로 밀려나 주목되지 못하고 있다(김은규 · 최성은, 2013).

공동체라디오 제도의 정체 상황에서 2012년 등장한 '마을미디어(Maeul Community Media)'는 주변부에 있던 공동체미디어에 대해 다시 관심을 불러 모으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 따르면 "마을미디어는 주민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로, 소통, 문화, 여가, 만남의 장이자 작은 언론의 역할을 하는 미디어이며, 다양한 미디어가 매체가 되어 주민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소통 공동체"다.[1] 마을미디어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서울시의 '우리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다. 이 사업은 중단기적인 계획 속에서 '마을공동체 활성

1)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설립하고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가 운영하는 서울의 마을미디어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이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마을미디어 지원계획과 실행, 정책 연구와 활동가 양성, 마을미디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의제 발굴, 마을미디어의 공유와 평가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다(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5).

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소통과 공유, 협력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마을의 직접적인 관계망 재형성을 사업의 중점 목표로 표방했다(라도삼, 2012). 서울시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민관협력네트워크로 사업단을 꾸렸으며 이 사업단에 한국사회의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선도해온 전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가 결합하였다. 2012년 한 해에만 서울의 18개 구에서 46개의 미디어 문화교실이 열렸다. 서울 시민들의 미디어 참여 욕구, 그리고 그 수요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을미디어 참여자 규모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에 참여 단체/주민모임은 196개, 제작되는 프로그램 수는 331개이며, 매년 함께한 참여자 수 총합은 23,725명이다(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6, 68쪽). 마을미디어는 한국사회의 미디어운동과 공동체미디어의 연장선에 위치한 새로운 흐름이라 할 수 있으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다양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허경, 2015).[2] 2004년 시범사업 이후 공동체라디오가 7곳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 마을미디어의 성장과 확산은 한국 사회의 공동체미디어 실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미디어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공동체미디어를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생각을 함께해왔다. 이는 공동체미디어는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모호하고 복잡한 단어 구성체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미디어가 참여하는 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정치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주체들의 기대가치와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해왔기 때문이다(Howley, 2010). 상업적 이익이 미디어 시스템을 오래도록 지배해온 미국에서 공동체미디어는 상업적 미디어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대안성이 강조되어왔다. 캐나다, 호주와 같이 공적 서비스 방송이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곳에서 공동체미디어는 무시되거나 침묵되어온 인종이나 민족, 문화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강조하며 공공방송과 상업방송의 이원화된 구조에 도전한다. 그리고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이 공동체 협약으로 결합되어 있는 EU의 경우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과 문화 간 소통의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가 된다. 남미와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탈식민지 사회에서 공동체미디어는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발전을 자극하는 발전커뮤

2) 부산의 경우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축이 되어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오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마을미디어 사례 34곳의 사례를 모아 〈부산마을미디어가이드북〉을 발행했다. 수원 지역의 경우는 수원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을 통해서 2015년 현재 13곳의 마을방송국이 활동 중에 있다. 전국영상미디어센터협회의 자료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수원 지역을 제외하고도 전국적으로 약 65개의 마을미디어가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해오고 있다(허경, 2015, 69~75쪽).

니케이션(development communication)으로서의 관점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억압적인 정권과 국영미디어의 선전선동에 맞서 직접적 저항적인 미디어 실천을 벌이기도 한다(Berrigan, 1979; Halleck, 2002; Howley, 2010; Rennie, 2006).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실천 지형을 만들어오고 있는 공동체라디오는 불리는 용어도 다양하다. 이를테면, 남미에서 AMARC(세계공동체라디오방송연합)은 공동체라디오를 민중라디오(popular radio), 교육라디오(educational radio), 광부의 라디오(miners' radio), 농민의 라디오(peasants' radio)로 부른다. 아프리카에서는 지역의 시골라디오(local rural radio)로, 유럽에서는 연합라디오(associative radio), 자유라디오(free radio), 이웃라디오(neighborhood radio)라고 부른다(Carpentier, Lie, & Servaes, 2007, p. 220). 이렇듯 전 세계의 각 대륙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라디오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서로 다른 실천들을 주목하고 있으며 공동체라디오의 명칭, 용어는 이러한 실천 지성과 상호작용한 과정이자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세계의 국가별, 지역별, 정치사회적 특징을 반영하는 공동체미디어의 다양한 실천과 마찬가지로, 마을미디어 역시 국내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디어운동의 상호작용적 실천의 과정이자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을미디어에 대한 규명과 담론의 진원은 마을미디어 실천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공동체미디어 운동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 마을미디어의 실천을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마을미디어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과 함께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은 5년이라는 물리적 시간 동안 다양한 모색과 실천을 벌여오고 있다. 그러한 실천 과정은 한국 사회의 미디어 운동의 자극제가 되고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모델로 작동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마을미디어 확산 배경에서 실제 마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는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인식과 경험은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국내의 공동체미디어의 대표 현상인 마을미디어의 실천 패러다임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주를 발견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근거이론적 접근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근거이론적 접근(grounded theory approach)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또는 잘 알려진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으로서,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귀납적으로 이론을 구축해나가는 질적 방법론이다(Strauss & Corbin, 1990/2004). 본 연구는 마을미디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미디어 실천의 영역으로서 아직 미정립된 다양한 논쟁을 수반하고 있는 만큼 연구방법으로 근거이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련의 체계적인 코딩 단계를 거쳐 수집된 자료를 개념화하고 범주화함으로써 마을미디어의 실천

패러다임 모형을 귀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마을미디어에 대한 담론과 근거이론

1) 마을미디어에 대한 담론

2012년 '서울시 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사업단'에서 주최한 '서울시민의 미디어 참여와 미디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마을미디어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토론회에 참여한 미디어 활동가들은 마을미디어, 마을공동체미디어, 그리고 공동체미디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대안미디어, 참여미디어, 시민미디어, 공동체미디어 등으로 표현되어온 미디어 실천 영역으로부터 크게 다른 무엇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허경, 2012),[3] 마을미디어가 마을 소식을 전하는 한정된 용례로만 사고되거나, 특정 지역으로서의 '마을'만으로 한정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체미디어의 실천 영역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측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을미디어'가 곧 공동체미디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주훈, 2012). 공동체미디어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서 대중적 인식으로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고,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을 고려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라고 용어를 정하되,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주류미디어에서 배제된 사회적 이슈 혹은 소수자의 목소리 재현과 제작 유통의 과정에서 소외된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들의 정치적 의식화 및 그 주체들에 의한 사회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라는 것을 함께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주훈, 2012, 34~35쪽). 공

3) 시민참여를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의 하나로서 공동체미디어, 공동체라디오, 시민미디어, 참여미디어 등은 마을미디어의 유사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가 제도화되면서 공동체라디오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미디어의 철학과 운영원리에 주목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의 원리를 강조하고 지배계층의 관심 대변이 아닌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는 데에 힘쓰는 상호 협력적 의미로서의 '공익'에 착안하여 공공성을 공동체라디오의 존립 근거로 제시해왔다(백미숙, 2004; 이만제, 2003). 그리고 지역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특히 강조하며 공동체라디오를 지역 매체로 규정하고 지역 매체로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지역과 지역구성원들에 대해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동체라디오는 사회적 유대감과 연대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미디어로 정의하며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적 실천이 지역적 문제해결과 지역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해왔다(김세철 · 손은성, 2005; 반명진 · 김영찬, 2016; 차재영, 1999).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하버마스의 공론장 논의를 부활시킨 '시민미디어' 및 '참여미디어'는 공론장으로 기능하여야 할 기존 미디어들이 정치권력과 자본에 종속됨으로써 시민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수동적 수용자로만 위치해 있던 미디어 소비자들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정보 이용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왔다(김은규, 2004).

동체미디어를 "지배적인 주류 미디어의 작동원리, 구조, 재정운영 방식, 문화적 실천에 도전하고 보완하거나 변화시키는, 공동체에 기반을 둔 다양한 미디어 활동"(Howley, 2010, p. 2)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했을 때, 마을미디어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주류미디어에서 배제된 목소리들의 재현과 유통에 대한 실천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서울시에서 수행해온 마을미디어 사업은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지향과 함께 '마을미디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중요한 것은 마을미디어가 공동체미디어인지, 지역미디어인지, 풀뿌리미디어인지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미디어, 미디어와 공동체, 공동체와 마을이 만나면서 어떤 활동을 해나갈지, 그것이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보다 다양한 시각과 상상, 그리고 지속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리하며, 마을미디어에 대한 선험적 논쟁보다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5, 9～10쪽).

현장에서의 담론 실천과 더불어 학계에서도 마을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채영길, 김용찬, 백영민, 김예란, 그리고 김유정(2016)은 마을미디어 참여자들이 공간과 관계의 공유 공동체로서 마을공동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로 유사한 노스탤지어적 감성을 공유하며 기존의 마을공간과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미디어로서 마을미디어를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마을공동체를 조직화할 때 상이한 동기와 소통방식이 작동하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을 갖는 마을미디어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마을미디어가 마을을 지배하던 위로부터의 주류 공론장과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공론장들의 역동성을 재발견하게 하며, 여기에 새로이 사적 유형의 공론장이 형성되는 변화과정에 있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마을미디어의 등장은 공론장의 분화과정으로서 마을 단위에서의 권력 갈등과 긴장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만들어낸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채영길 등, 2016).

또 다른 연구들은 개별 마을미디어 참여 주체들의 실천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다중의 다층적이고 정동적인 실천의 흐름에 주목한다. 창신동 라디오 '덤'의 여성노동자들의 참여와 실천을 분석한 강진숙과 이은비(2013)는 마을라디오를 통해서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공동의 유희성을 창출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마을미디어 동작FM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는 동작FM의 제작구조 및 인터넷 댓글 등의 물적 토대와 지역주민들의 참여사례를 분석하여 수평적 네트워크 속에서의 다중지성 형성과 재전유를 통한 다중의 실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강진숙 · 소유석, 2016). 또한 서울 마을미디어네트워크의 활동을 분석해 마을미디어가 개인들이 갖는 다양한 차이와 특이성이 원인이 되어 공동체미디어를

구성하고 실천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적 실천 주체들이 모인 집합으로써 늘 역동적인 행위들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마을미디어는 "다중의 네트워크로서 미디어를 통한 집단적 실천행위를 이끌고 일종의 대항권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강진숙 · 이은비, 2014, 180쪽).

요컨대, 마을미디어에 대한 담론은 마을미디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마을미디어 실천들이 갖는 문화 정치적 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논의들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마을미디어를 공동체미디어로 규정하고자하는 시도이며 그러한 결론을 내포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논의는 점차 제도적 문제를 비판하고 보완하기 위한 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김은규 · 최성은, 2013; 이만제, 2007; 최성은, 2012). 그러나 진입규제, 재정적 지원의 문제, 내용규제 등의 제도적 조건은 새로운 실천을 모색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담론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마을미디어는 한국적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실천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마을미디어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이제 시작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측면으로 확대재생산될 필요가 있다. 마을미디어에 대한 논의는 수적으로도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는 참여자 실천의 문화 정치적 함의를 밝히는 것에 집중되어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장 실천가들은 마을미디어에 대한 선언적 논의가 아닌 마을미디어의 실천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 담론의 지체에도 불구하고 마을미디어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시계는 변화와 성장이라는 5년의 물리적 시간이 흘러왔다. 본 연구는 마을미디어 실천 현장에 대한 한층 더 통시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마을미디어 실천 활동가들의 5년의 미디어 활동 연대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한국적 학술 담론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을미디어에 대한 개념 역시 서구로부터 이식된 논의에 맞추어 기술하는 방식을 벗어나, 국내의 실천 현장으로부터 마을미디어의 개념과 이론을 발견하고 탐색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근거이론

근거이론(grounded theory)[4]은 사회 연구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분석한 뒤 자료

4) 근거이론은 그레이저와 스트라우스(Glaser & Strauss)가 1967년 내놓은 병원에서의 죽음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된다(Charmaz, 2006/2013). 그레이저와 스트라우스는 다양한 병원 시설에서 죽음의 과정이 어떻게 이

에서 이론을 발견(discovery)하는 과정이다. 근거이론은 현실을 토대로 하고 있는 자료(data)에 근거(grounded)해 귀납적으로 발견된 맥락 속에서 이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의 '방법론'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렇게 도출된 이론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권향원, 2016; Charmaz, 2006/2013; Glaser & Strauss, 1967: 임종섭 · 김명준, 2015, 430쪽 재인용; Strauss & Corbin, 1990/2004). 이론은 이론가의 머릿속 관념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현실에서 생겨난다. 경험적 현실에 기반을 두고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을 견지한 채 '아래로부터 발견'을 통해 이론을 구축한다(권향원, 2016). 아래로부터의 발견이란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건과 상호작용적인 실천의 현장으로부터의 발견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외재적인 것이 아닌 내재적(intériorité)인 연구방법이다(Lazarus, 1996/2002). 우리에게 통용되고 있는 많은 이론들이 대부분 '우리'라는 내재적 원리로부터 비롯하지 못하고 외부 혹은 외래로부터 기인한 외재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있어왔다. 근거이론은 위로부터 또는 밖으로 온 외래성, 외재성이 아닌, 아래로부터 또는 안에서 발견되는 내재성의 이론으로서 현장 중심의 실천적 이론 구축에 대한 대안적 모색을 가능하게 해준다(권향원, 2016).[5)]

또한 근거이론은 자연스러운 실제 상황에 관심을 가지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행위하며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블러머(Blumer), 듀이(Dewey), 미드(Mead) 등의 상징적 상호작용(symboilc interactionism) 철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성동규 · 염선규, 2013; 임종섭 · 김명준, 2015). 상징적 상호작용은 인간의 소통의 과정을 '반응'이 아닌 해역의 과정, 즉 능동성의 '행위'로 규정한다(조종혁, 1992). 그러므로 인간의 자아 형성에 미치는 언어와 상징의 역할을 강조한다. 어떤 대상을 지각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강조

루어지는지 관찰하고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분석했다. 이러한 과정은〈근거이론의 발견(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1967)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리되었으며, 기존 이론에서 검증 가능한 가설을 연역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근거를 둔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을 개발하는 전략을 정교화하게 된다. 그레이저와 스트라우스는 한층 더 체계적인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했으며 이후 진화와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질적 연구의 다양한 갈래로 변화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 1990/2004)에 의해서 제기된 더욱 정교화된 분석 절차에 입각한 근거이론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5) 이러한 근거이론이 대두한 배경에는 과학철학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놓여 있다. 1960년대 이후 실증연구를 통한 이론의 타당성과 설명력을 현실의 자료에 대한 시험 및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분업화된 가설-연역적 접근" 방법이 과학적 패러다임의 지배력을 행사해왔다(Kelle, 2007, p. 191: 권향원, 2016, 189쪽 재인용). 사회과학은 소위 위로부터 내려온 이론들을 통해 현실을 설명, 예측, 처방하는 것에 몰두하였으며 이는 특히 스케일이 큰 거대이론들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거대이론에 현실을 맞추어 종속적 결과를 산출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 담론, 거대 이론이 현실과 유리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다. 언어는 상징의 교환에 따른 결과 혹은 효과다. 즉 인간의 경험과 실천은 객체 자아와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며 이는 언어라는 상징에 의해서 가능하다. 상징적 상호작용에 철학적 기반을 두는 근거이론은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상징 교환, 즉 언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동윤, 2013).

이러한 근거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론보다는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설명이 가능한 이론을 개발하는 데에 더욱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성동규 · 염선규, 2013). 경험적 현실에서 비롯하여 보다 가까운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근거이론은 '경험적 현실'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 질적 자료에서 질적으로, 귀납적으로 출발할 것을 요청한다. 이때 연구자는 질적 자료들로부터 연구문제와 대응하는 의미 있는 개념들을 탐색적으로, 발견적으로 추출할 수 있으며, 이들 상호 간의 패턴과 도식을 파악하여 조직화하는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연구자는 개념들을 채집하고 이에 적절하게 이름을 지으며(labelling) 이들 간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분류 및 관계 짓기를 통해 범주를 발견한다. 이러한 분석 작업은 일반적으로 '질적 코딩(qualitive coding)'이라고 부른다(Holton, 2007: 권향원, 2016, 184～185쪽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특히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근거이론 분석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방법은 마을미디어 실천의 경험을 상세하게 의미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이라는 지속 시간 속에서 변화와 성장의 역동적 과정에서 나타난 중심현상을 발견하고 그러한 현상의 인과적 조건을 분석하고 전략적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구조화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강지영 · 윤선영, 2016; 남성진 · 최정호 · 이재모, 2011; 박명희, 2014; 성동규 · 염선규, 2013; 이영범 · 박성우 · 남승연 · 정무권, 2012). 특히 어떤 현상의 이면에 있는 원인으로서 '인과적-맥락적 조건'이 무엇인지 혹은 해당 현상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구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인과 관계적 이론화"라고 할 수 있는데(권향원, 2016, 194쪽)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연구방법은 이러한 인과 관계적 이론화 과정에 적합하다.

질적 코딩은 수집된 질적 자료로부터 연구자가 연구문제와 대응하는 의미요소들을 식별하고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범주를 찾아가는 작업을 뜻한다(김영천, 2013).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질적 코딩은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개방코딩은 자료를 분석하여 개념화한 후 전후의 관계와 법칙을 고려하여 재조합하여 일련의 범주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축코딩은 발견된 범주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과 관계적 패러다임 모형에 맞게 범주를 재배열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선택 코딩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견한 핵심범

표 1. 코딩의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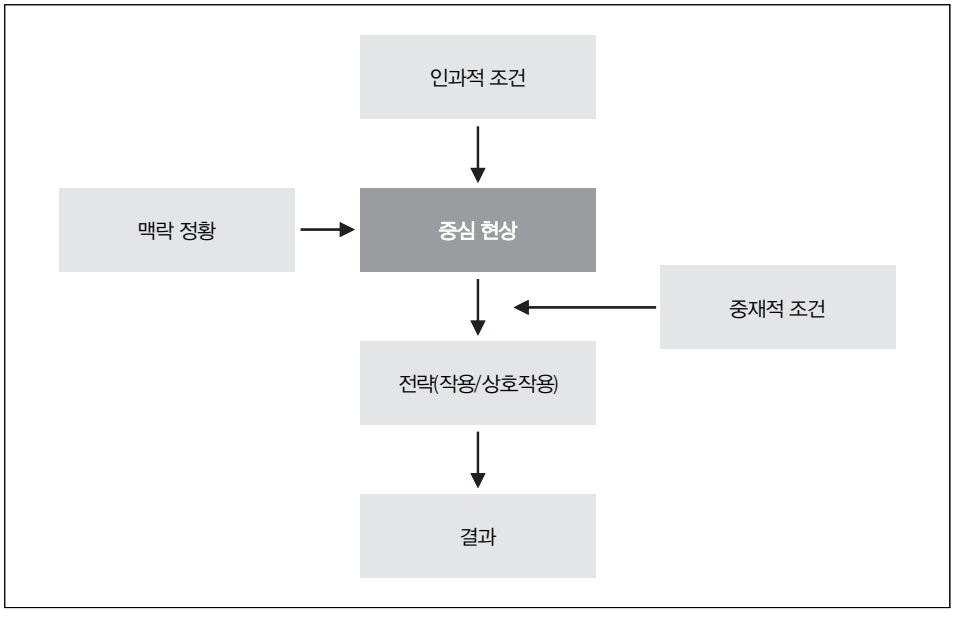
개방코딩 (open coding)	**축코딩** (axial coding)	**선택코딩** (selective coding)
연구문제와 대응하는 코드를 최대한 식별	식별된 코드 간의 관계를 구조적 관계도로 표현	식별된 코드 중에서 중요도 높은 핵심코드를 정리
정보의 풍부화	정보의 관계화	정보의 축소화

출처: 권향원 (2016).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권 2호, 204쪽에서 인용. 원 저작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주를 통해서 더욱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론화 작업을 위해 이야기 윤곽을 드러내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0/2004).

개방코딩의 과정은 자료에 대해 더욱 열린 자세를 견지하며 다양한 개념과 범주들을 발견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코딩을 통해서 발견된 범주들은 정보를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다. 축코딩의 과정은 이러한 정보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접근이다. 즉 해석적 틀로서의 패러다임 모형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면서 연구자의 인식 주관을 최소화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스트라우스의 패러다임 모형은 중심 현상(centeral phenomena),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맥락 정황(contextual conditi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 and interactional strategies) 그리고 결과(consequences)의 6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 먼저 중심현상이란 실천과 경험에 있어서 작용 또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조절되거나 관련 집단에 관계하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들이다. 연구자는 "이 자료는 무엇에 관계되는가? 작용과 상호작용은 모두 무엇에 관한 것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서 중심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인과적 조건이란 어떤 현상의 발생이나 발전을 이끄는 사건을 말한다. 인과적 조건은 "언제", "…하는 동안", "…이래로", "왜냐하면", "…하기 때문에" 등의 용어로 자료에 나타나며 중심 현상에 선행하는 사건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맥락 정황은 중심 현상이 처해 있는 일련의 조건이자 위치를 말한다. 중심 현상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조건으로, 맥락 정황 속에서 취해지는 전략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는 특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시간, 공간, 문화, 경제적 기술적 지위, 경력, 역사, 개인전기들이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들은 객관적인 정황 안에서 취해지는 전략을 촉진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특정한 인지된 상황들 아래서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고 실행하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고안된 전략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전략은 과정적 속성을

그림 1.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패러다임 모형



출처: Strauss, C.,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김수진 · 신경림 역 (2004). 〈근거이론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119쪽 재구성. 원 저작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지니며, 목적성이 있고 목표 지향적이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일어난다. 이러한 전략은 잘 못 취해진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며 이것에 대한 발견은 연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일으키는 중재적 조건이 있기 마련이며, 패러다임은 이러한 일련의 조건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여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이것은 항상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결과를 추적하는 것은 근거이론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Strauss & Corbin, 1990/2004, 116～127쪽).

스트라우스는 이러한 코딩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의 인식 주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분석의 모호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Strauss & Corbin, 1990/2004). 본 연구는 이러한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근거이론 분석 방법에 따라서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미디어 실천 경험으로부터 확인되는 다양한 범주와 개념들을 식별해내고 그러한 범주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여 실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미디어 활동 연대기를 따라 추출 되는 개방 범주들을 분석하여 지난 5년간 그리고 앞으로 지속될 마을미디어 활동의 실천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마을미디어 실천의

인과적 원인과 실천을 둘러싼 다양한 조건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과 그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실천 과정을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근거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마을미디어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마을미디어 현장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을미디어의 실천의 원리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실천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문제 1. 마을미디어 실천에서 나타나는 중심 현상과 그 인과적 조건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마을미디어 실천이 위치한 맥락 정황과 중재적 조건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마을미디어 실천 전략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12년 서울시의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와 동에서 마을미디어 활동을 시작하여 2016년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해온 4인의 마을미디어 활동가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성북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각각 마을미디어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미디어활동가 2인으로 총 6인이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 3가지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마을미디어 활동을 해옴으로써 마을미디어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12년 초창기 '우리마을미디어 문화교실'을 통해서 마을미디어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방송국 등의 형태로 운영체계를 갖추어 실천을 모색하고 있는 곳으로 대상을 좁혔다. 둘째, 마을미디어의 다양한 매체 유형이 존재하는 만큼 라디오와 영상제작 활동을 중심으로 한 '마을미디어 방송국'으로 매체 유형을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인쇄매체로 이루어져 있는 마을신문의 경우는 서울시 마을미디어지원사업과 별개로 다양한 공적 지원 체계에서 활동해온 배경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이라는 독특한 지원 구조에 따른 실천 경험을 간파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ID	지역	나이	성별	소속	역할	매체	인터뷰 시기
A	창신동	40대	여	창신동라디오 덤	운영자	라디오	2013년 10월
A-2					국장		2016년 10월
B	동작구	30대	남	동작FM	국장	라디오	2013년 10월
B-2					국장		2016년 10월
C	용산구	40대	여	용산FM	운영자	라디오	2013년 10월
C-2					국장		2016년 10월
D	성북구	40대	남	와보숑TV	참여자	영상	2013년 10월
D-2					협동조합이사장		2016년 10월
E	서울	40대	남	서울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센터장		2016년 11월
F	성북구	30대	남	성북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센터장		2016년 11월

하기 힘들다는 한계 때문이다. 이러한 매체 한정성의 문제는 이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보완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2013년 본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던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마을미디어 사례연구' 과정에서 다루어진 심층 인터뷰를 참조하고자 한다.[6] 2013년 마을미디어 사례연구에 참여했던 마을미디어 단체는 모두 7개로 창신동 라디오방송국 덤, 와보숑TV, 동작FM, 용산FM과 구로FM, 양천동 이야기하는 마을극장, 도봉N이다. 이들 중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거나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를 제외하고 2016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4개 단체를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였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가 활동하고 있는 마을미디어는 창신동 덤, 동작FM, 용산FM, 와보숑TV 등 네 곳이며 중간 지원조직으로는 성북구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있다. 마을미디어 4곳은 모두 2012년 서울시 '우리마을미디어

6) 2013년 이루어진 〈마을미디어 사례연구 보고서〉(이희랑 · 김희영 · 박지한 · 김주현, 2013)는 마을미디어의 개념과 의의, 마을미디어 활동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질적 연구다. 2012년, 2013년에 걸쳐서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마을미디어 단체 7곳을 마을미디어지원센터로부터 추천받아 심층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데이터는 마을미디어 활동 내용과 방식, 해결해야 할 과제 및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방인터뷰로 마을미디어 실천 원리를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 분석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3. 연구 참여자 활동 마을미디어 현황

마을미디어	제작참여	상근운영자	후원인	의사결정체계	콘텐츠	공간
창신동덤	7~12명	국장 외 1인	19명	확대운영위	월별 편성 6~10편	임대
동작FM	40명	국장 외 2인	80명	총회 운영위원회	주별 편성 11편	임대
용산FM	63명	국장 외 1인	40명	운영위원회	주간/격주 간 편성 11편	임대
와보숑TV	10여명	이사 1인	조합원 30명	총회 이사회	격주 간 정기 편성 1편 월별 비정기 편성	임대

문화교실' 사업을 통해서 서울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된 마을방송국이다. 창신동 덤은 창신동의 청소년공부방에서 활동하던 교사 그룹과 학부모들이 초기 의지를 모아서 함께 라디오 교육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했고 그 결과 다수의 봉제인들이 함께 결합하게 되었다. 용산FM은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던 '종점수다방' 활동가와 종점수다방을 통해서 문화 교육 활동 등으로 관계있던 여성들이 함께 의지를 모아서 미디어 수다방으로 시작하였다. 동작FM은 미디어활동가가 지역 시민단체 활동과 마을 활동에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동작구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해서 의지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고 '우리마을미디어 문화교실'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자들을 모집하게 된다. 와보숑TV는 성북구의 '함께하는 성북마당'이 주최가 되어서 지역의 단체들과 사회적 기업 활동가들과 함께 미디어교육을 하며 시작하였으며, 영상뉴스 제작과 같은 마을뉴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오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2013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방송국으로서의 활동을 지향하며 마을미디어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속해오고 있으며 주민 참여자들과 함께 다양한 실천을 해오고 있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2013년 서울시에서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며 지원역량을 가진 중간조직을 공모하여 선정된 미디액트에서 담당하고 있다. 성북구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자치구 단위의 첫 번째 중간 지원조직이다. 성북구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성북구의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1년마다 공모를 통해서 갱신하는 단위 사업자다.

연구 참여자의 심층인터뷰는 반개방적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각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을 만나기 전에 마을미디어 활동 현황, 마을미디어 활동의 연대기, 사업내용, 어려운 지점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지를 구성하였으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적 대화를 통해서 특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인터뷰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3)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연구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인터뷰와 관찰,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보고서등의 문서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2012년부터 서울시 마을미디어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간접 참여의 방식으로 마을미디어 활동을 관찰해왔다. 그러한 관찰 과정은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인터뷰에서 라포(rapport)를 형성할 수 있게 했으며, 이론적 민감성과 심층적 해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방법은 앞서 살펴본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근거이론적 방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Strauss & Corbin, 1990/2004). 근거이론은 참여자가 현상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반응하는가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접근법이며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박명희, 2014; 성동규 · 염선규, 2013; 이영범 등, 2012; Strauss & Corbin, 1990/2004).

본 연구의 주요 자료인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문자 텍스트로 전사하였으며 근거이론에 따라서 개방코딩 축코딩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개방코딩은 자료를 해체하고 해석하고 비교하여 개념화와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전체 자료를 행 단위로 세부적으로 해체하여 개념을 추출하고 하위 범주화하고 다시 범주 간의 특성과 법칙들을 발견하면서 범주를 도출하였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서 발견된 범주를 통 틀어 범주들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하나의 프레임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서 범주들을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맥락 정황,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그리고 결과들을 나타내는 범주로 연결하여 마을미디어 활동의 실천적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엄밀성을 위해서는 코딩과 분석을 위해서 1차적으로 전사한 내용에 메모를 한 후 논리적 도표(logic diagrams)를 이용해 범주와 범주 사이의 관계, 속성과 차원화 범위 안에서 표에 세부적으로 기록하였으며, 범주를 고르는 과정에서는 재료들로부터의 충분한 거리 두기를 위해서 공동 연구자들은 토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Strauss & Corbin, 1990/2004).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논문을 미리 숙독할 수 있도록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 · 보완하였다.

4. 분석 결과

인터뷰 내용에 대한 개방코딩을 통하여 87개의 개념과 59개의 하위 범주, 16개의 범주를 추출하였고,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 축코딩을 바탕으로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표 4〉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본 장에서는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서 마을미디어 실천의 중심 현상과 인과적 조건, 맥락 정황,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결과로 도출된 범주와 하위범주를 중심으로 마을미디어 실천의 원리와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표 4. 마을미디어 실천 패러다임 안에서의 범주 관계

패러다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마을미디어 교육	마을미디어 참여의 접촉면 되기	• 마을 주민들이 관심과 취미로 교육에 참여 • 감성적 체험과 자존감 획득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공동체 형성하기	• 참여자 다양성과 확대를 통한 공동체 형성 • 친밀성을 통한 관계 맺기
		미디어교육 시설로의 역할	• 다양한 참여자와 공동체에 맞춤형 교육 기획
		활동가의 성장을 위한 교육	• 교육 경험을 통한 조직의 성장과 문화 형성
		재정마련을 위한 교육 사업	• 미디어교육 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 마련
	마을 방송국 만들기	교육의 후속 활동	• 친밀성을 통한 관계 지속화하기 • 참여자들이 용기와 의지를 내기
		방송국 이름 정하기	• 방송국을 이름을 정하며 개국하기
		관계 형성과 공감의 장소 마련	• 정기적 모임을 위한 장소 마련하기
		기술 환경 구축	• 제작활동에 필요한 최소 장비 마련
		제작과 배포 활동	• 정기적/비정기적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중심 현상	마을미디어 지속 활동 욕구	지속가능한 관계 형성 욕구	• 참여자들 간의 지속가능한 관계 욕구 •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조건 충족 욕구
		지속가능한 공론장 실현 욕구	• 주민의 공적 발언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욕구
맥락 정황	마을미디어 정책의 불안정성	서울시의 마을미디어 브랜드 런칭	• 마을미디어 정책을 통해 사업 지원
		공적 지원의 불확실성	• 지원의 지속 가능성 예측 불가 • 지원 정책의 장기적 비전 부재
		지원센터의 위상 불안정성	• 1년 단위 사업자 선정 구조의 한계
		지원법의 부재	• 마을미디어 조례 및 관계법 부재
		행정 주체의 이해 부족	•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패러다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마을미디어 배급 구조의 한계	배급 방식의 제한성	• 전파 매체의 큰 영향력에 비해서 웹과 SNS로 제한되어 있는 배급 방식
		시/청자 규모 확대의 제한성	• 참여자들이 직접 시청자를 발굴해야 함 • 이용자 계층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 문제
		지역 영향력의 제한성	•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갖는 매체의 부재
		마을미디어 주파수 정책의 부재	•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파수 채널 부재 • 방송통신 관련 기관의 정책 부재
	마을미디어지원센터 매개 활동	지원역량을 가진 민간단체	• 미디어교육 및 공동체미디어 활동 전문가 그룹 •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신뢰 형성
		지지와 결속의 장 만들기	• 마을미디어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배급확대 방안 만들기	• 액세스 채널, 프로그램 제휴, 어플리케이션 제작
중재적 조건	마을의 장소성 (placeness)	물리적 토대로서의 장소	• 산개되거나 흩어지지 않고 모일 수 있는 물리적 거리
		일상생활 속의 관계망	• 내가 사는 모든 곳, 일하는 곳, 노는 곳 • 일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만나는 장소 • 공통의 문화를 경험하고 형성하는 환경
		인식 가능한 사람들	• 오다가다 만나며 인식가능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
		행정권역으로부터 자유롭기	• 행정권역 내에 존재하며 밖으로 관계망 확장하기
	제작 방식의 차별성	제작 자원의 차별성	• 주민 개별성이 담긴 목소리와 형상 기반의 콘텐츠 • 참여자 관계 기반의 공동 관심사 • 배제되었던 사람들, 공동체의 목소리 내기 • 마을의 역사와 문화, 현안과 소식 등
		제작 과정의 협력과 소통	• 사전 검열/선별하지 않기 • 주민 참여 편성/심의 활동하기
작용-상호작용 전략	운영자 구성 전략	운영위원회 조직하기	• 마을미디어의 의사결정 체계 만들기
		회의 구조화 하기	• 상시적/비상시적 회의 구조화하기 • 참여자 모두 함께 숙의하고 결정하기
		상근 활동가 고용하기	• 상근 활동가의 고용과 역할 분담 만들기
		활동가 그룹 만들기	• 실천적 의지를 가진 활동가를 조직하기 • 코어 그룹핑을 위한 교육과정 만들기
	재정 마련 전략	수익 사업하기	• 유료교육, 외주제작, 임대사업
		후원인 조직하기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참여자, 참여자 관계에 기반한 후원인 모집하고 관리하기
		공적 자원 활용하기	• 공모사업 활용 및 지원하기
		사회적 경제 모델 적용하기	• 미디어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마을기업 모델 적용
	장소 확보 전략	안정된 장소 필요성	• 체계적 운영 및 상근이 가능한 환경 • 미디어 제작 및 정기적 회의와 교육이 가능한 공간
		임대 방안 모색	• 주민 공동시설 빌려 쓰기 • 공간기획단, 도시재생, 마을지원사업과 연계하기 • 공개방송 등을 늘려 마을미디어 인지도 확대하기

패러다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참여자의 정서와 태도 변화	• 방송국다움이라는 정서 생성 • 참여자 스스로 공식성을 부여하는 태도, 책임감 형성
		임대료 해결방안 모색	• 후원 및 공적 지원을 통한 방법 모색
	배급 확대 전략	방송을 배달하기	• CD 및 스피커 배포하기
		콘텐츠 재활용하기	• 책 출판 및 음반 제작
		스페이스미디어 발명과 창조	• 공개방송의 현장으로 마을 '장소' 만들기 • 참여집단을 타기팅한 문화 활동 기획하기 • 문화예술과 토크를 결합한 콘텐츠 포맷 창조
		지역CATV 프로그램 액세스	• 전미협 단위, 지역구 권역의 CATV 액세스
		공동 플랫폼 만들기	• 팟캐스트 실시간 방송(연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방송국 만들기
		창의적 플랫폼 모색	• 전혀 다른 플랫폼을 창의적으로 모색하기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전략	네트워크 결성하기	• 마을미디어네트워크 정기회의와 사업 만들기
		공동연구와 대안 창출	• 정책 생산을 통한 공동의 전망 갖기
		공동행동하기	• 마을미디어 조례 요구와 연대행동
결과	참여자의 확대와 성장	참여자의 확대와 관계 생산	•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기 • 참여자의 내재적 변화와 관심의 확장 • 주민 관계 형성과 확대
		활동가의 변화와 실천	• 참여자의 욕망을 응시하는 인식과 태도 갖기 • 마을 안팎의 연대와 협력 및 영향력 갖기
	마을미디어 지향성 확립	주민 참여의 개방성	•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배제 없는 참여
		상호작용적 소통	• 함께 만나고 나누며 즐기는 소통의 통로
		자기관리 미디어	• 제작 역량과 장비 운영이 가능한 미디어 역량 • 공동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매체 확보
		공론장 기능	• 마을의 어젠다 및 역사, 문화 활동을 기록 •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공공영역(공론장)
	마을 공론장 활성화	마을 어젠다의 발굴과 소통	• 마을의 중요한 이슈를 발굴하고 제작 보급
		공동체의 연대와 결속	• 마을 공동체와 연대하는 스페이스미디어 활동

1) 중심 현상과 인과적 조건

마을미디어 실천에서 중심현상은 마을미디어 실천과 경험에 있어서 작용 또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조절되거나 관련 집단에 관계하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들이다. 연구자는 특히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의 실천 과정은 모두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중심현상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실천의 공통된

중심 현상은 '마을미디어 지속 활동 욕구'로 도출되었다. 마을미디어 지속 활동 욕구는 마을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만난 참여자들의 관계를 지속하고 그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마을의 공론장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 직장인 아빠 네 명이 야밤에 모여서 그 익숙하지도 않은 수다라는 것을 카메라 앞에서 한다는 게 처음에는 가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술을 앞에다 두고 먹으면서 했는데 점점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방송에 대해 자기가 준비해오기 시작하고 네 명의 호흡이 맞아가면서 돈독해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팀워크가 생긴 거죠. (인터뷰 D)

> 이게 진행하다 보니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을 정리해서 자기 사연 같은 것을 쭉 얘기하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는 과정을 굉장히 즐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인터뷰 A)

> 만약에 우리가 작은 동아리 활동이었다면, 그냥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5년까지 남아 있지도 않고, 손 털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속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즐겁게 잘 했어? 그럼 바이바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미디어활동은 다른 거 같아요. 지속하려는 내부 동인을 자꾸 만들어내고 체계나 외형 구조를 자꾸 갖추려고 하고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C-2)

이러한 마을미디어 지속 활동 욕구를 불러온 직접적인 인과적 조건은 선행 활동으로 이루어진 '마을미디어 교육'과 '마을방송국 만들기' 범주로 도출된다. 패러다임 모형에서 인과적 조건은 "언제" "…하는 동안" 등의 용어로 자료에 나타나며 중심현상에 선행하는 사건들을 발견함으로써 해석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2012년 '우리마을미디어 문화교실'이라는 서울시의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이후 2013년에 각각 방송국 이름을 붙인 후속 모임으로 전환하며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2012년 시작된 서울시 '우리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사업은 2012년 한 해만 46개 프로그램, 600여 명의 서울시민이 마을미디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14개 마을에서 자발적 미디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서울시우리마을문화교실사업단, 2013). 미디어교육은 성북 마을방송 와보숑TV, 창신동 라디오방송국 덤, 용산FM, 동작FM 등의 마을미디어가 출발하는 인과적 조건으로 작동한 것이다.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경험 속에서 미디어교육은 마을미디어로 들어오게 하는 첫 관문이며 서울시 마을미디어 사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참여자들은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 드러내기와 상호인정이라는 감성체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재미와 흥미를 이끌어내는 요소가 되었다.

>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 내가 진짜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 이게 있어야 하는데, 아마 저마다 다 누구나 있는데 그걸 얼마만큼 발견하는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교육 과정 안에서 자극을 받아서 딱 나오는 분들이 계신 거죠. ……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일단은 자기 자신이에요. 본인들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본인들이 마음껏 풀어 놀 수 있고, 그걸 얼마만큼 달성했느냐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이에요. (인터뷰 B-2)

> 2012년에는 라디오교실을 하면서 사람들이 라디오방송을 직접 해보는 거에 대한 맛보기를 한 거죠. 맛보기를 하고 완전히 진짜 재밌어가지고 신났던 그런 시기인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2013년에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국하고 이제 방송국의 형태로 시작해서 방송의 형태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마음먹고 한 것이 이때 2013년부터고, 하면서 보니까 2013년에는 모든 게 다 새로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인터뷰 A-2)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의 경우 2012년의 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이후 2013년에도 후속 활동을 도모하며 마을방송국을 개국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마을방송국의 개국은 이러한 마을미디어교육의 후속활동을 통해서 가능했다.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이 지원 단체에게 한 번의 교육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며 참여자들은 방송국으로서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기적 제작, 장소마련, 장비구축 등의 활동을 통해서 마을방송국을 구축 · 운영하기 시작한다.

> 오퍼레이팅도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바로 그날 오퍼레이팅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장비도 조언 구해가지고 그냥 후원 모으고, 장소가 고민이었는데 장소도 동네에 소문내다가 교회에 부탁을 했더니 아주 흔쾌하게 또 오케이 해주셔서 어떻게 생기고. …… 진짜 단순 무식한 똥배짱으로 완전히 시작을 했는데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모르는 것을 주변에다가 어떻게 해요? 하면 또 주민센터에서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그런 네트워크들이 무식하게 한 걸음 내디디니까 쫙 생기고. 쫙 생기면서 기적처럼 뭔가 일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되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죠. 그 성취감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인터뷰 A)

미디어교육 이후 '방송국' 활동으로의 전환은 참여자들, 그리고 참여자들의 활동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마을방송국을 개국한다는 것은 교육 이후의 활동에 대한 의지를 가짐으로써 참여 주체의 '자리바꿈'의 과정이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용기를 내고, '우리 한번 해보자'에 의지를 내는 이성적이자 감성적 실천의 과정이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구나!'라는 이중적인 감정 상태에서 참여자들은 마을방송국이라면 갖추어야 할 최소 요소들을 스스로 모색하며 활동을 시작한다. 오다가다 들를 수 있고 안정적으로 모임을 지속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고, 지원구조 안에서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다. 주류방송국이나 소출력 공동체라디오들처럼 정기적인 방송제작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회의를 갖는다. 방송국을 개국하는 초기에는 물질적 환경보다는 참여자들의 열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 특징을 갖는다. 교육이 이루어졌던 공간에 간단한 제작 장비를 설치하고 참여자 전원이 함께 운영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시작된다.

미디어교육에서 연계된 '마을 방송국' 활동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 활성화해낸다.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욕구는 다양하게 처해 있는 조건 속에서 활동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욕구,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마을의 공적인 영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확대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욕구는 마을미디어를 지속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도출시키며 이러한 전략들은 다양한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실천된다.

2) 맥락 정황

맥락 정황은 마을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활동이 처해 있는 일련의 객관적인 조건이자 위치를 말한다.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패러다임 모형에서는 중심 현상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맥락 정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 한 결과 다양한 제도적 현실에서 맥락 정황의 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실천 패러다임의 맥락 정황으로 도출된 범주는 크게 3가지로 '마을미디어 정책의 불안정성', '마을미디어 배급 구조의 한계', '마을미디어지원센터 매개 활동'으로 분석되었다.

서울 마을미디어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정책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정책은 마을미디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불안정을 조성하는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활동가들에게 서울시 마을미디어 정책은 마을미디어 공적 지원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 우리 마을미디어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상징되고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자립을 사실 원했거든요. 이제 너희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자립을 해야 하는 거 아냐?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공모사업도 연차가 되면서 점점 더 줄어들고 3년 이상이 되면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의식도 사실 있었고. (인터뷰 D-2)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수입이 안 나니까 문 닫아라, 알아서 자립해라 이러지 않잖아요. 도서관도 시민들에게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공공성이 있고 학습에 대한 지원인거잖아요. 근데 마을미디어 방송국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모이고 여기에서 소통과 참여가 확산되고 여기서 지역의 이슈, 어젠다가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요즘 하고 있는 마을계획이나 다양한 좀 더 살기 좋은 마을과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초나 매개를 하는 게 마을방송국인데, 여기서 자립만 강조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 B-2)

마을미디어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제도적 한계는 마을미디어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정황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놓여 있다. 게다가 마을미디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센터의 운영 구조 역시 불안한 상태다.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는 1년마다 공모를 통해서 갱신하는 단위 사업자인 만큼 민간위탁 사업의 방식을 띠고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 지원센터'와는 확연히 다른 운영방식이다. 이러하다 보니 지원센터의 위상은 불안정하다.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센터도 1년 단위 보조사업자잖아요. 마종센터(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서울마을미디어센터가 있는데, 마종센터는 조례도 있고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가는 위탁사업인데, 서울마을미디어센터는 1년 단위 보조사업자에요. 우리랑 똑같은. 1년마다 계약을 서울시 문화 예술과에서 그해 사업 예산을 책정하면 공모에 응해서 하는 거죠. 1년 단위로. 그래서 공백기가 항상 있는 거죠.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언제 시작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기다려요. 언제 하실 거예요? 맨날 이러면서. (인터뷰 C-2)

맥락 조건으로 도출된 두 번째 범주는 '마을미디어 배급 구조의 한계'다. 마을미디어는 현재 자치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파수나 채널 없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시스템이다. 인터넷TV를 통해서 방송하거나 팟캐스트, 아이튠즈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방송한다. 웹과 소셜미디어는 누구나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선택 제한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미디어다.

디지털화를 통한 통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V와 라디오 같은 채널과 주파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의 공동체미디어가 인터넷을 서브 매체로 활용할 뿐이고, 주파수와 지역 채널 권역 안에서 여전히 실천을 모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Ali, 2012 p.1132).[7)]

> 제일 큰 거는 파급력의 한계죠.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으로만 들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시장 상인이나 어르신이나 저소득층에게 잘 다가가지 못 하죠. 주파수가 있으면 소형 단말기 하나만 있으면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든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든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죠. 운전하다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팟캐스트는 스마트폰이 아니면 듣기 쉽지 않으니까.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다 해도 굉장히 그 문턱이 있는 거죠. 그 확장성과 파급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매체로서의 파워, 이런 것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 주파수가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지역에 방송이 되고 있다, 동작구 지역 주민들이 저희 주파수에 들어가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 하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큰 파워가 되는 거죠. 어쨌든 전파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동작구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것과 누가 찾아 와서 듣는 팟캐스트는 자체가 다르죠. 저희도 주파수가 생기면 지금하고 양상이 달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터뷰 B-2)

> 어쨌든 채널 하나를 확보한다는 거, 지속된다는 거는 마을미디어가 지속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콘텐츠가 계속 나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데 뉴미디어 상황에서는 뭐 하나 터뜨려야 한다는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짧은 영상, 임팩트 있는 영상, 72초 영화, 뭐 이런 것들. 마을미디어도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막 강조하기보다는 지속성

7) 2010년 캐나다의 공동체TV 이용자와 방송국 연합(CACTUS:Canadian Association of Community Television Users and Stations)이 캐나다라디오TV방송협회(CRT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 대항해서 일어난 "공동체를, 공동체TV 돌려놓아라"라는 전국적 캠페인은 공동체미디어의 매체파워와 지역 장소성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천 사례다. 지역 케이블TV의 액세스 채널 정책으로 공동체TV 정책이 제도화되어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2000년을 전후로 디지털위성통신 배급업자들에 의해서 지역 케이블사업자들이 상업적으로 잠식당하며 지방자치정부와 액세스채널 정책으로 유지되어 온 공동체TV 운영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했다. 정책 입안자들 역시 위성은 지역 배급이 아니라는 것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수많은 공동체미디어들이 재원 악화에 시달리다 문을 닫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공동체미디어는 수 십 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유튜브와 같은 위상으로 격하되었고 미디어활동가들 마저도 디지털위성과 지역 케이블 사이에서 논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역 매체로서의 파워를 가지고 있던 공동체미디어는 전국권역의 배급망을 얻은 대신, 지역 매체로서의 파워와 공적 재원 기반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Ali, 2012, p. 1119).

> 과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양으로 표현되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채널이 필요한 거고 올드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전파나 케이블 채널 등을 하나 확보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큰 안정감과 지속성을 줄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운영되기 위해서 당연히 공적자금이 들어와야죠. 해외를 통틀어서 공적 자금 없이 운영되는 마을미디어라는 건 없어요. (인터뷰 F)

> 결국은 국가 제도의 변화, 그런 큰 그림에서의 정책적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여기에 큰 그림의 정책적 대응, 방발기금이나 주파수 정책이나 채널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공급자 중심에서의 변화 필요성, 그렇게 한 축이 있지. (인터뷰 E)

동 지역에 동 시간에 송출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성을 아우를 수 있는 매체 파워는 현재 서울시 마을미디어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제한된 주파수도 TV 채널도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종편사업자들에게만 열려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이러한 매체 경쟁력의 한계는 한국적 공동체미디어라 할 수 있는 마을미디어가 세계 전역의 공동체미디어들과, 그리고 한국의 소출력 공동체라디오와 처한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요소다. PEG 액세스채널을 중심으로 공동체TV(액세스 채널 정책)을 제도화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현재 3,000여 개의 공동체TV가 지역의 CATV 전파 라이센스를 할당받아 지역 공동체미디어로서의 매체 파워를 형성해오고 있다. EU 지역의 국가나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가까운 일본까지 각 지역에는 수백 개의 공동체라디오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지역 매체로서 영향력을 구축해오고 있다(유은혜, 2016). 그러나 한국의 경우 영국과 비슷한 시기에 공동체라디오가 제도화되었으나 영국은 현재 200여 개의 공동체라디오가 주파수를 받아 운영 중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단 7곳, 서울에 단 2곳이 소출력FM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공동체미디어, 마을미디어는 사실상 매체 환경과 조건에서는 UCC 같은 이용자생산콘텐츠 이상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조건이 현재 마을미디어의 배급의 구조적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문역량을 가지고 있는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마을미디어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맥락 정황 범주로 도출되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성북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2곳이 중간 매개 조직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 지원센터의 경우는 계약 사업자인 반면에 성북구 지원센터는 구청 직영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지원센터가 각각 처한 조건 역시 차이가 있다. 활동가들은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에 대한 강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참여자들이 매체파워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지와 연대, 교류를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마을미디어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는 힘을 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 막연하고 불안하고 뭔가 레퍼런스가 없는, 신뢰할 만한 모그룹이 없는 상황인데 연말에 모여서 우리가 매년 축제를 하잖아. 같이 으쌰으쌰 하고 우리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이런 어떤 거. 이런 하나하나들이 처음 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이고 하찮은 게 아닌 거 같아, 뭔가 괜찮은 일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데 주춤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적어도 언덕은 분명히 됐다는 생각을 하지. 심적이든 물적으로든 공감과 지지의 역할을 하는. (인터뷰 E)

> '뭐가 필요하세요?' 항상 이렇게 여쭤 보죠.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매달 하는 게 있고 행사들 있죠. 1박2일 워크숍도 있고 페스티벌도 있고 마을영화제도 있고 그런 행사들을 네트워크 운영위원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마을사업과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연계가 되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자칫하면 구정홍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상 긴장을 해야 해요. (인터뷰 F)

또한 다양한 배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국미디어센터협회 등과 공동의 전략을 통해서 지역 CATV 액세스 전략 등을 모색한다. 그리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한정되어 있는 배급 구조 안에서 공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 마을미디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행정 주체들을 매개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민과 관의 조화로운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공 언어, 설득적 언어를 위한 다양한 모색과 실험기를 거치고 있다.

3)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맥락 정황 속에서 취해지는 다양한 전략을 조장하거나 강요할 수 있게 하는 특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은 실천 공간이나 문화적 특성, 경험 주체들의 지위나 경력, 역사, 개인 전기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재적 조건은 마을미디어 실천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 특성인 '마을의 장소성'과 '마을미디어 제작 방식의 차별성'이라는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중재적 조건으로서 첫 번째 범주는 '마을의 장소성'이다. 마을미디어에서 '마을'은 한국적 공동체미디의 새로운 실천을 표방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실천 속에서 마을은 특정한 행정권역, 이를테면 어떤 구나 어떤 동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마을미디어 참여자들의 일상적 생활공간, 인식가능한 사람들과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생활세계를 의미하고 있다. '인식가능한 일상적 공간'으로서 마을은 산개되거나 흩어지지 않고 모일 수 있는 물리적 거리로서 몸(body)을 가진 존재가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물리적 토대이자 살고 일하며 놀고 즐겨 찾는 모든 곳에서 밀접하게 부딪히고 얽히고설키는 관계에 의해서 공동의 문화를 체험하며 사는 곳이다. 마을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이 인식 가능한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다.

> 우리가 물리적인 존재잖아. 맨날 다니는 길 다니고 부딪히는 사람과 부딪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몸을 가진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그게 모든 것의 씨앗인 거 같아. …… 우리가 물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역 기반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망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 (인터뷰 A-2)

> 어떤 뭉칠 수 있는 조건, 지역이라는 조건, 끝나고 나서 산개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뭔가 의기투합할 수 있는,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조건. (인터뷰 E)

> 경계를 굳이 둬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사는 데가 다 마을이지 뭐. 저는 잠은 동대문구 가서 자고 일은 강남구 여기 와서 하고 놀기는 성북 가서 놀거든요. 나는 그럼 마을이 어디냐? 제일 오래 있는 데가 여기 일하는데, 강남구에요. 제일 짧게 있지만 제일 애정이 가는 곳은 성북구고, 가족이 있고 사는 데는 동대문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저는 그냥 두루두루 생활권이 다 마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밖에 얘기될게 없잖아요.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다 마을 아니에요? (인터뷰 D-2)

요컨대 마을은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를 모두 아우르는 가깝게 인식가능한 정도 규모의 장소기반과 관계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 세계 각 지역의 공동체미디어 관련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공동체'가 취향이나 관심, 특정 계층이나 계급적 관계의

실천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라는 개념과 고유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해 왔다(Ali, 2012, 2015; Howley, 2010) 미디어활동 속에서 특별한 물리적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사람들을 묶어내는 것은 그들이 일상의 기반을 통해서 자신의 공동체의 사건들, 사람들을 인지하도록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Howley, 2010). "실재 계급의 배치는 소비자가 살아가는 곳, 농부가 곡식을 키우고 생산자가 공장을 가동시키는 곳, 그리고 노동자가 일을 하는 그곳에 있다. 이러한 고정된 지대(stationary islands) 주위에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일컫는, 사람, 예술, 음악, 기술, 종교, 그리고 정치의 네트워크가 생긴다"는 것이다(Shuman, 2000, p.8). 이러한 일상은 존재가 위치한 시간과 공간의 펼쳐짐이며 실천적 시공간을 형성한다(Lefèbvre, 1974/2011). 일상은 가장 해결되지 않는 욕망들, 결핍 등이 반복되는 처참한 곳이지만, 땅에 뿌리를 내린 채 삶을 지속시키는 위대한 곳이다. 이러한 일상이 펼쳐지는 공간에서 다양한 존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하면 살아가는 영토가 마을이며 일상적 관계 맺기 활동은 마을만들기의 원리이기도 하다(이희랑, 2013).

> 제가 상상하는 마을TV는 누구나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스튜디오를 찾아오고, 요리 잘하는 사람은 스튜디오에 와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뽐내죠. 아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니, 몇몇 동네 주민은 관심이 있어 할 거예요.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이 문제에 대한 할인마트 직원과 재래시장 상인의 싸움, 아니 토론이 방송돼요. 동네 주민들도 이것을 텔레비전으로 보죠. 동네 주민들은 길가다 우연히 찍어서 보낸 영상들을 마을TV로 보내고 이 영상들은 모여서 하나의 동네 뉴스가 되는 거죠. (인터뷰 E)

마을미디어는 주민 참여자와 그 관계기반이라는 마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이다. 이것은 마을미디어의 가장 두드러진 차별화의 지점이며 경쟁력의 기반이기도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마을미디어의 제작방식의 차별성은 마을미디어 실천의 중재적 조건을 구성하는 두 번째 범주가 된다. 마을미디어는 제작 자원과 제작 과정에서 여타의 다른 미디어, 이를테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그리고 웹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1인 미디어와도 차별성을 갖고 있다. 마을미디어의 제작자원, 요컨대 소재와 주제의 기반은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 주민 관계로 이루어진 마을공동체에 있다. 공영방송 체계에서도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이야기, 다종 다능한 마을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원이 되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 마을 살림살이에 필요한 다양한 현안들이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 이걸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던져주고 그것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봐주는 그 관계 구조와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이게 사실은 마을미디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팟캐스트에 올린 거 몇 명이나 들어요. 이걸 하면서 만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쳐 간 사람들이 있고 저희 주민 앵커라든지 인터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교류하고 네트워크하고 우리가 어떤 매개가 되고 그게 마을미디어의 역할이지 우리가 뭐 빵빵 터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게 마을미디어 역할 아닌가, 그런 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온 거고. (인터뷰 D-2)

마을미디어는 데스크의 권한이나 게이트키핑 과정에 의해서 선별되거나 사전에 검열받지 않는다. 청취율이나 광고효과가 아닌 참여자의 관심과 욕구, 공동체들의 관계 기반, 협력 과정을 통한 제작과정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된다. 이러한 과정은 일종의 마을미디어의 제작, 편성윤리가 된다. 특정 전문가에 의해서 검열되는 시스템이 아니며 자정적인 과정으로서 주민들이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우선시다.

> 11개의 방송이 되게 무지개 같아요. 저마다의 색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작FM은 데스크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유언비어나, 루머나 팩트에 어긋나거나 그런 게 아니면 뭐든지 동작FM 방송이 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아주 세고 빨간 방송도 가능하고 아주 러프하고 라이브한 방송도 가능하고,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보수시민단체가 와서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잘 안 오시는 거지, 막지 않아요. (인터뷰 B-2)

> 사전검열은 없고 무조건 나가요. 편성하는 저희가 봐도 욕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양해를 드려요. 저희가 전체 관람가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 F)

이처럼 마을미디어가 '마을'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미디어의 공공성을 표방하고 그러한 목적에 맞도록 제작방식을 차별화하고자 하는 제작 방식의 문화적 특성은 마을미디어 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특정한 인지된 상황들 아래서 중심 현상을 다루고 실행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전략은 목표 지향적임과 동시에 과정적 속성을 갖는다. 마을미디어 지속 활동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은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오고 있다. 실천 패러다임의 전략은 모두 5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즉 '운영자 구성 전략', '재정 마련 전략', '장소 확보 전략', '배급 확대 전략', 그리고 '마을미디어네트워크 전략'이다.

먼저 운영자 구성 전략은 운영위원회 조직, 회의의 구조화, 상근활동가 고용, 활동가 그룹핑 등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국 개국 시기였던 2013년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교육 참여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와 결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이후 운영위원회 구성과 함께 상시적, 비상시적 회의 체계를 만들어 방송국을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오고 있다. 방송국 운영 초기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조를 마련한 곳은 동작FM이었으며 와보숑TV의 경우는 2015년 협동조합 모델로 전환하며 총회와 이사회 구조로 전환된다. 반면에 창신동 라디오방송국 덤은 확대 운영위원회로 더욱 느슨한 관계 기반의 운영구조를 오랫동안 지속해오고 있다. 운영 체계화 전략에는 상근 활동을 할 수 있는 운영 실무자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등장한다. 방송국 개국 초기에는 방송국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능력을 갖춘 인적 구조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대두하고 있었으며 고용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녹음할 수 있도록 녹음 세팅해주고 오퍼레이팅해주고 그런 역할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완전히 헌신으로만 진행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인거에요. 제일 좋은 건 인건비가 마을 차원에서 십시일반으로 해서 한 사람의 월급이 나오면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인터뷰A)

이러한 마을미디어의 실무 운영자 확보 전략은 2015년에 도입된 서울시의 뉴딜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지만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특히 창신동 라디오방송국 덤의 경우는 고용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조직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2015년 되면서는 10개월 정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활동가를 뉴딜일자리로 동네 청년이랑 같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결국 둘 다 중간에 그만뒀어요. 약간 복잡한 변수들이 있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되게 불안정하다는 것이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

> 구들이 미래를 보기에는 급여는 적고. 한 친구에 말에 의하면, 연봉 엄청 많이 주는 것처럼 일 시켜 먹는다고. 청년일자리가 그다음 해에는 절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연속고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 2014년에는 알바 개념, 2015년에는 조금 더 같이 갈 동지를 찾는다는 개념으로 청년활동가가 결합했는데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쓴맛을 본 거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고용의 형태를 취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인터뷰 A-2)

운영 안정화 조건은 결국 재정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영 안정화는 공간, 상근자 인건비, 운영비 등의 최소 고정비를 해결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적 지원과 재정 자립이 둘 다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가는 이제 고용의 형태가 아닌 핵심 활동가 그룹 조직화라는 다른 전략을 모색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 덤의 가치지향의 코어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야 분위기가 될 수 있잖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공장으로 달려가서 들어주십쇼,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까 한마디만 해봐요, 이런 분위기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거지. …… 지금은 핵심 코어를 만들어야 할 시기이니까 가치지향이 맞는 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한대로 확장해서 되는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될까 고민 중이야. (인터뷰 A-2)

전략의 두 번째 범주는 마을미디어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재정 마련 전략'으로 수익 사업하기, 후원인 조직하기, 공적 지원 활용하기, 사회적 경제 모델 적용하기 등의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와보숑TV의 경우 외주 제작의뢰를 받고 있고 동작FM은 장비나 스튜디오 시설 등을 임대하고 있다. 또한 모든 마을미디어는 후원인단을 조직해오고 있다.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은 재정마련의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적 지원과 자립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사회적 경제 모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와보숑TV의 경우는 마을방송국 개국 초창기부터 운영 자립을 위해 사회적 경제 모델에 대한 담론이 풍성했으며 협동조합 모델을 전략적으로 모색했다. 그리고 참여자가 확장되고 제작 역량이 높아지며 외주 제작 의뢰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서 2015년 협동조합 모델로 전환하게 된다. 협동조합 모델로의 전환은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 재정 자립도를 갖추고 참여자들 간에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조직 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수익 구조를 중심으로 한 운영 모델은 마을미디어 활동 본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근

본적인 문제제기를 던지게 만든다.

> 14년 15년을 거치면서 수익이 필요하니까 협동조합으로 전환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돈 주는 일이 생기면 돈 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루루 그쪽으로 가요. 많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면 이제 마을미디어 본연의 역할들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어쨌든, 꼭 쥐고 가야 하는 것들은 놓치지 말자 해서 왔지만 이제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인터뷰 D-2)

수익 모델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마을살이를 기록하고 의미 있는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발굴하는 본연의 활동은 당면한 외주 사업 앞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만다. 와보송 TV 활동가는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성찰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한다. 수익창출을 위한 외주사업과 마을미디어 활동의 정체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다.

> 마을기업은 저희가 여기서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사업화시켜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의 기업으로서의 몸체가 필요한 거죠. 뭘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을미디어형 마을기업에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요. 다 처음이에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도 처음이고 마을기업도 처음이고. (인터뷰 B-2)

동작FM의 경우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비영리단체가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한편,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마을미디어의 재정 안정성을 꾀하려고 모색하고 있다. 창신동라디오 덤의 경우도 봉제교육과 연계한 마을기업에 대한 실험을 모색했으나, 운영 인력, 재정부족이라는 악순환에 의해서 보류 중에 있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모델은 마을공동체의 재정 자립성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실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익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 모델은 마을미디어와 같은 공공성을 지닌 활동의 경우 비영리성이라는 본질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공동체 운영 모델의 시장화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체의 자력을 독려하는 데에 의미 있는 방향이라 할 수 있지만, 공공영역을 유사 시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전략이기도 하다(김예란 · 김용찬 · 채영길 · 백영민 · 김유정,

2016). 마을미디어의 사회적 기업 모델 적용과 시장화 전략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천 패러다임 전략의 세 번째 범주는 '장소 확보 전략'이다. 마을미디어는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활동인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마을미디어 활동의 중요한 실천 과제가 되어왔다. 마을방송국의 장소 구축은 참여자들의 마을미디어 활동에 공식성을 부여해주는 결과는 낳는다. 안정되고 지속된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방송국 스튜디오 구축은 '방송국다움'이라는 공동의 정서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활동에 스스로 공식성과 책임감을 부여한다.

> 마을공동체 공간지원 사업이 딱 14년에 선정이 되가지고 14년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공간이 바뀌니까 완전 다르죠. 방송국이라고 딱 있는 것과 텅 빈 사무실에 마이크 올려놓고 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죠. 일단, 여기를 오시는 분들이 느끼는 방송국다움? 아 여기가 방송국이구나 처음 들어 봤고 처음 왔지만, 와서 다들 놀라요. 와, 다 있네. 되게 제법이네. 되게 깜짝 놀라고 가서 소문들을 내고 그러는 거죠. 노량진 지하에 동작FM이 있어서 가봤는데 되게 그럴듯하더라, 거기서 사람들이 방송을 만든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뭔가 왔을 때 다시 한 번 오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동작FM의 정보를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게 되게 큰 거 같아요. 그전부터 방송하던 분들도 공사를 하고 스튜디오 만들고 나서 방송을 다시 시작하실 때 다들 하는 얘기가 그 전에는 단편적인 여가활동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책임감, 공식적인 이런 것을 부여받는 것 같다, 어쨌든 가면 딱 스튜디오가 있고 체계가 잡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전과는 느낌이 많이 사뭇 다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인터뷰 B-2)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해서는 토지에 기반 한 장소 거점은 필수적이다. 이는 토지 기반의 장소성을 갖지 않는 온라인 공동체 활동과의 변별적인 지점이기도 하다.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은 방송국 장소를 마련하고 스튜디오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공간지원 사업을 활용하거나 도시 재생 사업 등과 같은 공공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마을에 인지도를 형성하고 마을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 올해 인지도가 좀 확장된 게 있는데, 공개방송을 올해 11번 했어. 미쳤어.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확장해야 공간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있

어서 그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도시 재생에서 공유 공간,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하는데, 입지조건이 좋진 않지만,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워크숍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A-2)

전략의 네 번째 범주는 배급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배급 확대 전략'이다. 인터넷 송출에 국한된 배급의 구조적 한계라는 맥락 정황 속에서 일상적 관계 형성과 근거리에 있는 마을의 장소성이라는 중재적 조건을 이용한 다양한 실천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하위 범주로는 CD나 스피커를 통해 방송을 직접 배달하는 전략, 책이나 음반과 같은 문화콘텐츠 형식을 활용하여 유통하는 전략, 전략적으로 스페이스미디어를 발명하여 마을 주민들과의 공적인 만남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전략, 지역CATV와 프로그램 액세스 제휴 전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기할 만한 몇 가지 하위 범주를 살펴보면 먼저 '방송 배달하기'이다. 창신동 마을라디오 덤은 2013년부터 인터넷 송출의 한계를 의식하여 방송을 직접 가가호호 전달하는 실험적인 전략을 모색한다.

소통통이라고 사람들한테 편지함 같이 사연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우리 홍보지 꽂고 그리고 옆에다가 방송 CD를 구워서 놔두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몇 군데에 설치를 하려고 추진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듣는 방식이나 인터넷으로 듣는 방식은 낮에 여기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방식이 아니거든. (인터뷰 A)

스피커 배포를 2014년에 시도해보고 그런데 이건 실패예요. 2013년도에는 CD를 구어서 돌렸는데 CD플레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보통 테이프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테이프 고속복사기를 봤더니 여러 개 하는 거 보니까 가격이 어마무시한 거야. 그런데 다 이게 한번 쓴 담에는 쓰레기인거야. 대신 USB를 꽂는 스피커를 배포한 거지. USB에 방송을 담아서 방송 배달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본 거지. 그랬는데 문제가 배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스피커를 좀 큰 공장에다가 설치하고 그때 한 10 몇 개 했던 거 같아.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조금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 USB를 매번 방송이 나올 때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배포해줄 인력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자원봉사자를 구성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교육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일이 많으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게 되는 거야. …… 결국은 배달을 가서 사람들에게 알랑 방구를 하면서 틀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너무 좀 그런 거지. 그분들이 자기 듣고 있는 방송 있다고 하면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오고 그런 게 나중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인터뷰 A-2)

창신동 덤은 마을에 봉제공장이 밀접해 있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방송'을 담아서 직접 배달하는 실험적인 실천을 2년에 걸쳐서 진행한다. 신문 유통 전략과 흡사한 방식이다. 그러나 직접 배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재활용이 안 되고 쓰레기를 배출시키고 있다는 점과 함께, 신문과 달리 직접 틀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배달 매체로는 한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낸다. 창신동 덤의 방송 배달 전략은 현재 마을미디어 실천이 위치한 배급 구조의 한계라는 맥락 정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스페이스미디어 발명은 마을미디어 실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배급 확대 전략이다. 스페이스미디어는 마을 공간 속의 다양한 장소를 매개로 하는 미디어를 일컫는다(윤상길, 2011, 333쪽). 마을의 개방된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인 광장이나 공원, 거리 등은 마을의 대표적인 스페이스미디어이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시장, 도서관, 마을서점 등 역시 마을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스페스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 주민센터와 함께 퀴즈, 이야기 나눔 마당 같은 그런 컨셉으로 공개방송을 했었고 원효로 마을축제라고 성심여고 안에서 학교와 주민과 공동체들이 같이 만들어서 공개방송하고, 화상경마장 앞에 가서도 800일 때 가고 음악잇수다에서 공개방송까진 아니지만 장소를 좀 바꿔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방송을 좀 했고, 작년에는 한 5번 정도 했고, 올해는 도서관에서 책 읽는 엄마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나와서 책 읽어주고 그런 방송을 용산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같이 하니까 홍보해주시고 참가할 사람 모아주고 해서 많이 오셨죠. …… 공개방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공개방송을 많이 하는 것은 주민들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내부의 재미난 활동이기도 하고. (인터뷰 C-2)

> 매달 두 개 씩 진행했거든. 하나는 꼭대기장터방송이라고 동네사람들 축제 같은 장터에서 진행하고, 하나는 퇴근길 여유한잔이라고 직장인들 유입해볼 수 있을까 해서 지하철에서 할 구상을 생각한 거지. …… 우리 같은 경우 방송 개수나 질로 승부를 하기엔 쉽지 않은 조건인거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문화 활동에 조금에 더 초점을 두게 되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 같아요.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도 있고 가벼운 참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개방송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된 거 같아요. (인터뷰 A-2)

공개방송은 마을의 특정 공공장소에서 마을 주민들을 공개적으로 만나서 하는 방송

이다. 마을미디어는 이러한 마을의 다양한 장소들을 미디어로 하여 공개방송을 하거나, 문화제, 집회, 토크콘서트, 영상콘서트, 시장방송 등을 해오고 있다. 이것은 개방되어 있으며 공공이 집합해 있는 혹은 공공이 네트워크되어 흘러 다니는 공간들을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전환하는 활동이다. 이처럼 마을 스페이스미디어는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을 직접적으로 매개하는 소통 전략일 뿐만 아니라 마을을 공공의 영역으로 바꿔내는 실천 전략이기도 하다. 방송의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마을의 절대적 공간은 공동의 문화적 경험과 사건을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는 것이다(김성경, 2013). 마을미디어에서는 마을이 곧 미디어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CATV와의 프로그램 액세스 전략 역시 중요한 실천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와보숑TV가 결합되어 있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지역케이블TV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프로그램 액세스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액세스는 채널 운영권이나 소유권을 갖진 못하지만 PA의 형태로 마을미디어의 배급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웹미디어에 '서울마을라디오 동네방네' 등의 공동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실시간 방송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별 마을미디어의 단위 별 실험과 전략들은 마을미디어의 연대와 공동행동을 통해서 보다 확장된다. 마을미디어 실천 전략의 마지막 범주는 마을미디어네트워크 전략이다.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은 목적의식적으로 2014년 서울 전체를 아우르는 마을미디어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며, 2015년 동북4구를 묶는 동북권 마을미디어네트워크 또한 출범시켰다. 마을미디어네트워크는 마을미디어의 지속적 활동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의견 집단이 되기 위해서 마을미디어네트워크 가입 단체 수를 확보하고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다. 또한 마을미디어 정책이나 교육 교재 등을 스스로 생산하고 공동의 전망을 통해서 조례안 등을 개발하여 제시해 왔다. 동북권 마을미디어네트워크는 특히 편성운영위원회 역할을 하며 마을미디어의 내용을 자정 작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마을미디어네트워크를 만든 이유는 마을미디어가 1년짜리 사업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을미디어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 시장이 바뀌더라도 마을미디어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적인 기반을 만들어라, 근거를 만들어라 이런 것을 요구하기 위한 거죠. 각 분야별로 마을미디어 정책도 많이 만들었어요. 교육, 활동 분야별로 마을미디어와 관련된 정책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제출을 했어요. 네트워크와 센터가 같이 협의해서.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 운영위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 의회에 마을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지금 목표에요. (인터뷰 C-2)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마을미디어의 정책 불안정성과 배급 구조의 한계라는 맥락 정황에서 마을미디어의 장소성, 제작방식의 차별성 등의 중재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활동가들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3년 인터뷰에서는 참여자들의 열정에 기대어 있는 것이 주로 발견되었다면 2016년 인터뷰에서는 마을미디어 활동의 안정화와 지속화를 위한 더 전략적인 실천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천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미디어 실천 전략들은 과정적이며 여전히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근활동가를 고용하기 위해 적용한 서울시의 뉴딜 일자리 마련 전략은 오히려 더욱 다양한 참여자 그룹을 확대해야 한다는 새로운 전략을 도출해내고 있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취해진 협동조합 등과 같은 수익 모델 전략은 마을미디어 활동의 가치 지향을 확인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간 임대료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다양한 배급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한정된 배급 구조는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하다.

5) 결과

요컨대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양한 전략들을 도출해 냈으며 이러한 전략들은 마을미디어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게 되고 마을미디어 참여 주체의 변화와 실천,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미디어 실천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 영역으로서 '참여자의 확대와 성장', '마을 공론장 활성화', '마을미디어 지향성 확립'이라는 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략들은 첫째 마을미디어 참여자의 확대와 성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참여자의 확대 재생산'과 '활동가의 변화와 실천'이라는 2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다양한 전략적 실천 결과 마을미디어는 다양한 방식의 참여 방식이 만들어졌다. 스토리텔러가 되어 생산적인 미디어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에서부터 인터뷰나 게스트 등으로 가볍게 참여하는 방식, 그리고 방송국의 운영과 후원 등에 직간접적으로 결합하는 방식까지 다양화되었다. 마을미디어에 참여한다는 것은 행정권역 안에서 통치 체제의 대상으로서만 표상되었던 개별 생활인들이 고립되고 드러나지 않았던 목소리와 형상을 스스로 드러내며 문화생산의 장(field)에 상징투쟁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Bourdieu, 1995: 이만제, 2003 재인용). 이러한

참여의 과정은 참여자들의 관심과 흥미, 열정과 도전과 같은 내재적 변화를 수반한다. 참여자들의 관심과 욕구가 밖으로 드러나고 상호 연결되면서 참여자들은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이웃과 마을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인식의 폭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마을공동체의 관계망 생성으로 이어진다.

> 일반 주민들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다 활동가가 돼버렸어요. 애들 엄마들이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디 내놓아도 아깝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활동가가 된 거죠. 진짜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두 분이 방송하는데 두 분 다 엄마고 대책위에서 같이 일도 하시고. (인터뷰 C-2)

> 동작FM 방송 제작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제작 경험을 통해서 그전보다 훨씬 더 임파워먼트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수요사람책방 진행자 이**, 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120회가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마을에서 사회자, 진행자에요. ……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를 진행하시는 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동작구 학교든 구청에서 시민단체든, 역사 하면 저분이에요. 역사, 지역에 관련된 논의 하면 이제 김**를 떠올리게 된거죠. (인터뷰 B-2)

> 저희가 하고 있는 동네 인터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참 재미있는 게, 마을에 진짜 버라이어티한 사람이 많아요. 다종다능한 사람이 많고 사연도 많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밌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재밌고.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요. (인터뷰 D-2)

> 마을미디어 활동은 사람과의 만남이다? 끈끈한 만남. 좀 진한 만남. 그리고 사람들을 엮어간다고 할까? 거미줄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타래? 하나하나 좀 엮는 역할을 하는 활동인 거 같아요. (인터뷰 C)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과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활동가들은 마을미디어를 통해서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경험한다. 공동체미디어 교육이 소위 '찾아가는' 방식이 주를 이루던 때에 미디어활동가는 마을에 거주하며 함께 일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주민이라기보다는 외지에서 온 전문가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을미디어의 활동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일상적 실천으로서 마을미디어 활동을

모색하는 활동가라고 할 수 있다. 활동가들은 참여자들의 다양한 형상과 욕구를 응시하기 시작하며 이전의 조직문화와 실천으로부터 체화된 관습적 행위를 벗어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변화와 성장을 가까이에서 실감하며 자신의 변화와 실천을 위한 학습에 매진한다. 마을미디어 제작을 위해 학습하며, 운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소통 방법을 공부한다. 참여자들이 수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는 시간을 버텨내며 다양한 한계 조건들 상황에서도 활동가들은 마을미디어의 변화와 성장을 온몸으로 체화하는 실험가가 된다.

> 그니까 2014년도 좀 전환이 된 거에요.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우리 마을 이야기로 전환이 됐는데 다 한계를 느꼈어요. 우리 창신동 봉제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은 거야. 동네의 전문가들 봉제 단체들 대표도 부르고 초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다 한자리에 모여서 종합간담회도 한 거죠. 2015년에 계속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못 하겠는 거야. 대안을 못 찾는 거야 아무도. …… 2015년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소식방송도 안 했고 현안 다루는 것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2016년에 들어오면서 결심을 했던 게 하나는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자, 현안 내가 언제 다뤄봤냐, 그렇다고 안 할 건 아니니까 할 거라면 장기간 보고 현안 다루는 능력을 키우자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실력이 갑자기 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인터뷰 A-2)

> 마을미디어 1박2일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밤에 뒤풀이를 하면서 느낀 거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전혀 미디어 운동과도 관계없을뿐더러 그냥 머리 파마하던 사람, 덤 아줌마도 그렇고 은평에 장사하는 사람이었나 말 잘하던 사람 있었잖아. 저 사람들은 왜 여기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야. …… 마을미디어를 하면서 내가 욕망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 단어를 지겹도록 되뇌고, 욕망이라는 것이 나로서는 화두였던 것 같아. 욕망.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지난 10년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조직화된 대중이란 말이야. …… 2013년에서 아, 이거는 엄청난 프로젝트다. 우리가 기존까지 해왔었던 것이 우리 만족이 더 컸을 수도 있었겠구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만족,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변화, 그것을 통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충격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고민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터뷰 E)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 그것은 주체가 사회적 표상 체계에서

익숙하게 재현되었던 집단적 정체성으로는 담아 낼 수 없는 넘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마을미디어 활동은 지배적 체제에 의해서 규정된 정체성의 담론으로부터 행하고, 보고, 살고, 느끼고, 말하는 방식들에 익숙해 있는 존재 자신이 정체성들의 분배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체화되고 다른 위치로 자리바꿈(déplacement)하고자 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Rancière, 1998/2008).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다르게 의미화하고 연대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미디어는 공동의 경험과 사건에 개입하며 함께하는 주체들의 역동적인 자리바꿈과 관계형성으로 이루어진 정치의 장소다(이희랑, 2013).

마을미디어 실천 결과의 두 번째 범주는 마을 공론장 활성화다.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루어진 다양한 전략들은 마을미디어 참여자들과 실천 활동가들을 마을의 공적 영역, 공공의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 다양한 스페이스미디어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마을공동체 간의 연대와 결속을 불러왔다. 마을의 중요한 이슈와 어젠다를 통해서 네트워크하고 문화 활동을 함께 모색해온 것이다.

> 지역사회에서 주민 현안이나 혹은 꼭 지역의 현안이 아니어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문화제나 집회나 이런 것들을 동작FM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장비와 인력과 여러 가지 기획력 같은 것을 가지고서 만들어내고 있고.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버스킹 공연이나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주거 문제, 청년들의 취업 문제, 노동권 문제 등 이런 것을 가지고서 길거리에서 토크 콘서트, 이런 것도 열고 있고요. …… 동작FM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가 공론장 형성인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만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명확하죠. 공론장 형성이라는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만드는 게 고민거리인거죠. 그래서 질 좋은 방송콘텐츠를 만드는 것 플러스 찾아가는 것, 그렇게 길거리에서 동네에서 광장에서 판을 벌려놓고 시민들, 지역주민들이 직접 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것, 지역방송국 동작FM 같은 방송국의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요. …… 동작FM 같은 경우는 동작구 시민사회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시민사회와 한길을 걸어가고 있는 방송국인 거죠. 그래서 동작구 시민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그중에서 미디어나 공론장이나 혹은 어떤 문화예술 행사나 공연이나 동작FM이 할 수 있는 미션에 대해서는 그걸 하는 게 맞죠. (인터뷰 B-2)

마을방송국 활동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나 시민사회는 홍보나 재원의 통로

가 되기도 하고 마을미디어와 마을, 시민사회를 연결시키는 접촉면이 된다. 특히 마을방송국의 활동이 2~3년차로 진입하게 되면 마을미디어는 조직적 운영을 위해서 시민사회 단체나 마을공동체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시도한다. 하버마스(Habermas, 1981/2007)는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사회에서의 공론장의 복원과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마을미디어의 참여는 마을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표출하거나 사회적 소통의 권한을 인식하고 강화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참여적 민주주의의 활동으로 연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결과 범주는 '마을미디어 지향성의 확립'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을미디어는 연구 담론이 부재한 상황, 마을미디어에 대한 개념조차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실천을 시작하였다. 5년여 간의 마을미디어 실천과 다양한 전략적 모색 과정은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스스로 마을미디어의 지향과 가치를 인식하고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변화의 결과를 가져 왔다.

> 누구나 자기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는 기록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드는 방송입니다. 동작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든 여기 잠깐 살든 여기서 집이 있든 여기를 가끔씩 하루에 한 번씩 다녀가든, 혹은 여기에 그런 게 없어도 동작구를 좋아하는 사람, 어쨌든 지역 주민의 의미가 굉장히 광의의 의미에요. 그분 삶의 이야기, 그분의 고민들, 또 관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방송을 만드는 것이죠. ……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마을 방송국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존중되는 것이 지역 풀뿌리민주주의잖아요. 지역사회에서 주민 현안이나 혹은 꼭 지역의 현안이 아니어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문화제나 집회나 이런 것들을 동작FM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장비와 인력과 여러 가지 기획력 같은 것을 가지고서 만들어내고 있고. (인터뷰 B-2)

> 동네사람들의 이야기, 동네사람들의 자신의 이야기, 동네 이야기, 이웃 간의 이야기, 동네에 대해서 바라는 것, 하고 싶은 일, 동네 주민들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 그런 방송을 하는 것, 동네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방송을 하는 것. 그리고 동네사람들이 스스로 즐거워서 만드는 방송이 되어야 되고 동네에 시시콜콜한 소식도 전달해주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우리한테는 소중한 그런 소식들을 전달해주는 방송이 마을 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인터뷰 C-2)

이러한 마을미디어 지향성은 참여의 개방성, 상호작용적 소통, 자기관리 미디어, 공공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라는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미디어는 행정권역에 얽매이지 않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성과 평등성으로 이루어진다. 관심과 욕구를 가진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참여를 통해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은 만나고 이야기하고 의미 있게 듣고 봐주는 상호작용 과정으로서 유희의 공간이자 소통의 통로로서 마을미디어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자기 관리가 가능한 미디어 조직으로서 마을을 기록하고 마을의 공공영역으로 사민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활동해 오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은 제도적인 한계 상황에서도 일상적 관계와 소통이 가능한 마을의 장소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기 위한 운영 안정화, 배급 확대, 마을미디어 저력 확장 등 다양한 전략을 중심으로 활발한 실천을 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마을미디어 참여자의 확대 재생산과 활동가들의 성장, 그리고 마을 스페이스미디어, 공론장의 활성화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공동체미디어 운동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 마을미디어의 실천을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다. 이를 위해서 근거이론적 방법을 적용하여 개방코딩 및 축코딩을 통해서 마을미디어의 실천 패러다임의 핵심 범주들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실천의 공통된 중심 현상은 '마을미디어 지속 활동 욕구'로 도출되었다. 마을미디어 지속 활동 욕구는 마을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만난 참여자들의 관계를 지속하고 그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마을의 공론장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미디어 지속 활동 욕구를 불러온 직접적인 인과적 조건은 선행 활동으로 이루어진 '마을미디어 교육'과 '마을방송국 만들기' 범주로 도출되었다. 실천 패러다임의 맥락 정황으로는 '마을미디어 정책의 불안정성', '마을미디어 배급 구조의 한계', '마을미디어지원센터 매개 활동'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정책은 마을미디어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마을미디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불안정성을 조성하는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마을공동체에서 직접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채널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웹과 소셜미디어에

만 의존하는 마을미디어의 배급 구조는 지역매체의 한계로 작동하고 있었다. 마을미디어 실천 패러다임 모형에서 중재적 조건은 '마을의 장소성'과 '제작 방식의 차별성'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중재적 조건으로서의 '마을'은 마을미디어 참여자들의 일상적 생활공간, 인식 가능한 사람들과의 관계망으로서 보다 개방적인 참여와 일상적 참여가 가능한 조건이 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와 참여자들 간의 관계 기반, 마을공동체의 어젠다 발굴에 생산 자원을 두는 제작방식은 마을미디어의 다양한 참여 방식을 만들어냈고 참여자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게 했다. 실천 패러다임의 전략 범주는 '운영자 구성 전략', '재정 마련 전략', '장소 확보 전략', '배급 확대 전략', 그리고 '마을미디어네트워크 전략'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전략들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운영 안정화 획득 실천 전략이라는 공통성을 갖는다. 전략적 실천 과정은 마을의 공적 영역에서의 스페이스미디어를 활성화해냈고 수익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 모델과 마을미디어의 가치 지향이 실천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지점을 간파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마을미디어 실천 결과는 '참여자의 확대와 성장', '마을 공론장 활성화', '마을미디어 지향성 확립' 등의 결과로 도출되었다.

마을미디어 교육과 방송국 만들기를 통해서 시작된 마을미디어 활동은 관계 형성을 지속시키고 마을의 의미 있는 공론장으로 역할 하고자 하는 욕구를 중심으로 마을 채널의 부재와 공적 지원의 불안정한 정황에서도 마을의 장소성과 참여자 주체성에 기반 한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실천 전략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참여자의 확대 재생산, 마을미디어 활동가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마을 공론장 형성 가능성을 실현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으로 위치해 있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주체의 실천이 가지는 역동성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마을미디어 실천이 마을미디어의 공공성을 입증하고 공적인 영역으로서 마을미디어를 섹터화하기 위한 몇 가지의 연구 과제를 제안하며 결론적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마을미디어는 미디어에 대한 소유와 운영을 보장받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마을이 혹은 마을의 시민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소유하는 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공동체미디어로서 마을미디어의 대안성이 획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연구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은 하나같이 전파와 채널의 필요를 언급했으며 이것은 마을미디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체로서 일정한 파워를 갖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인터넷 기반의 서울 마을미디어의 매체 영향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둘째, 서울 마을미디어에서 스페이스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

제이다. 마을미디어의 주요한 실천전략의 하나인 스페이스미디어는 마을이라는 공간을 미디어로 탈바꿈시키며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이 일어나게 하는 매우 독특한 활동 영역이다. 이것은 매체파워를 갖지 못하는 마을미디어가 마을로의 안착을 위해 찾은 일종의 자구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을' 이라는 장소성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마을미디어의 정체성을 구조화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페이스미디어가 마을미디어의 정체성 형성과 마을의 공론장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마을미디어의 경제적 모델들은 공공성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의 대한 문제다. 연구에 참여한 마을미디어들은 재정자립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사회경제적 틀의 도입을 고민하고 있었다. 활동가들은 미디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모델 도입이 마을미디어가 갖는 공공성을 전제로 하여 수익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활동가가 많지 않은 마을미디어 구조에서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활동은 마을미디어 활동 본연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역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마을미디어들이 놓인 딜레마적 상황 조건과 경제적 모델의 도입이 마을미디어의 공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강지영·윤선영 (2016). 간호사의 직장내 괴롭힘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간호과학회〉, 46권 2호, 226-237.

강진숙·이은비 (2013). 공동체 라디오 DJ의 미메시스적 실천과 유희성 연구: 창신동 라디오방송국 〈덤〉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5권 2호, 37-66.

강진숙·이은비 (2014). '서울마을미디어'의 다중 실천과 문화정치적 의미에 대한 연구: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 개념을 중심으로. 〈방송과커뮤니케이션〉, 15권 3호, 143-185.

강진숙·소유석 (2016). 공동체 라디오 동작FM의 다중참여와 실천사례 연구. 〈한국언론학보〉, 60권 5호, 292-318.

권향원 (2016).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권 2호, 181-216.

김동윤 (2013). 〈인간관계 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성경 (2013). 북한이탈주민의 월경과 북·중 경계지역: 감각되는 장소와 북한 이탈여성의 '젠더'화된 장소 감각. 〈한국사회학〉, 47권 1호, 221-253.

김세철·손은성 (2005), 소출력 FM방송의 활용과 지역사회 발전: 대구 성서공동체FM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24권 2호, 81-103.

김영천 (2013). 〈질적연구방법론1〉. 서울:아카데미프레스.

김예란·김용찬·채영길·백영민·김유정 (2016). 〈공동체는 발명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발명, 운동의 재발명〉. 2016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61-80쪽).

김은규 (2004). 〈미디어와 시민참여: 시민미디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은규·최성은 (2013). 영국 공동체 라디오 정책 고찰을 통한 국내 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30권, 113-158.

남성진·최정호·이재모 (2011). 근거이론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권, 101-128.

라도삼 (2012). 〈마을만들기 사례와 전략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명희 (2014). 근거이론을 적용한 집단독서치료 참여자들의 변화경험과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권 3호, 463-488.

백미숙 (2004). 미국 라디오방송 제도의 성립과 공익개념 형성.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373-399.

서울시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 사업단 (2013). 〈2012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 결과자료집〉.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4). 마을미디어, 판을 벌이다 (2013 마을미디어활성화사업 결과자료집).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5). 꿈을 그리는 마을, 마을을 그리는 미디어 (2014 마을미디어활성화사업결과자료집).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6). Cheer UP! (2016 서울마을미디어 네트워크 1박 2일 워크숍 자료집).

성동규·염성규 (2013). 온라인 마녀 사냥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 30권 1호,

145-189.
유은혜 (2016). 〈국민의 영상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한 해외 지원정책 사례〉 (국정감사정책자료집).
윤상길 (2011). 한국의 지역사회와 지역커뮤니케이션의 구조.〈한국민족문화〉, 39권, 327-365.
이만제 (2003). 소출력 FM 도입을 위한 일본 사례 연구. 〈방송연구〉, 통권 57호, 209-234.
이만제 (2007). 공동체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공동체 라디오 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1-32쪽).
이영범·박성우·남승연·정무권 (2012). 근거이론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지속발전 모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권 4호, 355-387.
이주훈 (201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역할 및 운용. 서울시민의 미디어참여와 미디어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점검과 과제' 자료집 (31-43쪽).
이희랑 (2013). 〈공동체미디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이희랑·김희영·박지한·김주현 (2013). 〈마을미디어 사례연구〉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연구 보고서).
임종섭·김명준 (2015). 근거이론방법의 고찰과 언론학 연구에 주는 함의.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427-452.
반명진·김영찬 (2016).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장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78권, 79-115.
조종혁 (1999). 〈커뮤니케이션학: 이론과 관점〉. 서울: 세영사.
차재영 (1999). 미국의 공동체라디오 연구. 〈북미주학연구〉, 8호, 199-213.
채영길·김용찬·백영민·김예란·김유정 (2016). 서울시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 공론장의 분화와 재구성. 〈커뮤니케이션이론〉, 12권 2호, 4-46.
최성은 (2012). 공동체라디오 법안의 필요성 및 해외 사례. '공동체라디오 발전 법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 (5-18쪽).
허경 (2012). 서울시 마을미디어정책 현황과 과제. 서울시민의 미디어참여와 미디어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점검과 과제' 자료집 (4-30쪽).
허경 (2015). 2015년 마을미디어의 좌표, 확산과 네트워킹을 위한 과제. '변화를 만드는 마을미디어 포럼' 자료집 (59-105쪽).

Ali, C. (2012). Media at the margins: Policy and practice in American, Canadian, and British community televi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6.* 1119-1138.
Ali, C. (2015). A community of communities? Emerging dynamics in the community media paradigm. *Global Media and Communication, 11*(1). 3-23.
Berrigan, F. J. (1979). *Community communication: The role of community media in development.* Paris, FR: National Distributors of Unesco Publications.
Carpentier, N., Lie, R., & Servaes, J. (2007). Multitheoretical approaches to community media: Capturing specificity and diversity, In L. K. Fuller (Ed.), *Community media* (pp. 218-235). NY: Palgrave Macmillan.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박현성·이상균·이채원 (역) (2013). 〈근거이론의 구성〉. 서울: 학지사.

Habermas, J. (1981). *Theories des kommunikatien Handelns: Handlung- srationalita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장춘익 (역) (2007). 〈의사소통행위이론2: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 서울: 나남.

Halleck, D. (2002). *Hand-held visons: The impossible possibilities of community media*. NY: Fordham University Press.

Howley, K. (2010). *Understanding community media*. Tousand Oaks, CA: Sa.

Lazarus, S. (1996). *Anthropologe du Nom*. 이종영 (역) (2002). 〈이름의 인류학〉. 서울: 새물결.

Lefèbvre, A. (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양영란 (역) (2011).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로.

Rancière, J. (1998). *Aux bords du politque*. 양창렬 (역) (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서울: 도서출판 길.

Rennie, E. (2006). *Community media: A global introduction*. Rowman & Littlefield.

Shuman, M. H. (2000). *Going local: Creating self-reliant communities in a global age*. New York, NY: Routledge.

Strauss, C.,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김수진·신경림 (역) (2004). 〈근거이론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투고일자: 2016. 11. 30. 게재확정일자: 2017. 1. 18. 최종수정일자: 2017. 1. 23.

Exploratory Research about Maeul Community Media Practice

Grounded Theory Based Analysis about Seoul Community Media Practice

Hee Rang Lee
Lecturer, School of Media &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Hee Young Kim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Maeul Community Media is community media practice that media education combine with community activism based on the region. Maeul Community Media appeared with Seoul city's supporting policy in 2012 and is now enlarging on a national scale beyond Seoul. This study is aimed at understanding and investigating Maeul Community Media activists' practice process by using a grouned theory approach.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of study participants who worked on as activists based on visual and radio field since 2012. By open coding based on grounded theory, 16 categories and 59 subcategories were discovered. The outcome of axial coding showed the centeral phenomena that can be called 'sustainable desire for Maeul Community Media act'. On the condition of the instability of public support and the absence of a village channel, the strategic practices were discovered, which are diversification of participants recruitment and modes of participation, invention of space-media, seeking multilateral distribution methodologies and the collective action plans of networks to stabilize the management and to empower Maeul Community Media networks. As a result, Maeul Community Media and civil society were networked by discovering and agenda-setting pending issues. And we could find that the desire and expectation for the role as a village's public sphere were enlarging.

KEYWORDS Community Media, Maeul Community Media, Sustainable Desire, Grounded Theory